

‘미술 · 음악’ 아름다운 협화음

사단법인 더문화, 15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 공연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 그림과 음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문경)의 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해당 공연은 2022년 사단법인 더문화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2022년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이다.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는, 그림과 연관이 있는 클래식 작곡가 및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로 풍부한 예술의 향취를 느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술의 장이 될 공연이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예술의 여러 장르 속에서 각 장르를 따로 구분짓는 것이 아닌, 여러 장르를 조화롭게 엮어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다채로운 협화음으로 만드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의 공연을 통해 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만들어 클래식을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초보자들에게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양의 고전을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자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전북도민들과 함께하며 여러 작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밑도 있는 공연으로, 관람 후의 관객들에게 하여금 기습과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잔상의 여운을 남겨드리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출연자는 다음과 같다.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호남오페라단의 정단원이자 위드클래식의 대표인 바리톤 박세훈,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졸업, 또한 미국 Indiana대학교 연주자 과정 및 미국 Wisconsin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한라대, 계원예중고, 안양예고에 출강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영주, 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주기전대학 겸임교수, 군산대 출강 및 문화공간 이룸의 이사장, 사단법인 더문화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 포스터

르크 국립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호남오페라단의 정단원이자 위드클래식의 대표인 바리톤 박세훈,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졸업, 또한 미국 Indiana대학교 연주자 과정 및 미국 Wisconsin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한라대, 계원예중고, 안양예고에 출강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영주, 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주기전대학 겸임교수, 군산대 출강 및 문화공간 이룸의 이사장, 사단법인 더문화

의 예술총감독이자 음악교육신문 전북지사장인 피아니스트 이문경, 선화예고와 숙명여대 기악과 수석 졸업 및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숙명여대 연주박사(DMA)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숙명여대 대학원, 공주대, 강릉원주대, 조선대, 강원예고 및 영재교육원에 출강 중인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에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자들은 관객들에게, 화가와 음악가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하나로 묶어 화가들의 화풍과 음악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며, 미술도, 클래식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만든다고 한다. 영상을 통해 그림에 관한 해설과 연주할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예술적 소양에 목마른 일반인들은 물론, 음악이나 미술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북도민들에게는 아름답고 훌륭한 감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경 이사장은 “15일 공연인 ‘그림을 보면 음악이 들린다’가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예술의 세계에 부담 없이 행복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이나 예술의 역사에 대해, 선입견을 깨고 쉽고 즐겁게 발을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미술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으로 관객분들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예술의 잔상이 피어나고 이 품이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군산시가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평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실 맺나

문체부 실무검토단 현장 방문 예비사업 점검 · 조성계획서 평가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군산시가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평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문체부 실무검토단이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추진한 예비사업들을 점검하고 5년 동안 추진할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날 16개 예비도시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이 중 6개 지자체를 본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본도시 지정 시 최대 국비 포함 200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 군산대 교수, 이하 센터)는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곳곳의 문화자원을 찾아 공유했다. 문화공동체 경험을 확장하고 또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문화공유대학의 문화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27문화스튜디오, 동네문화추적단, 동네문화카페 등 동네 단위 사업을 특성화해 지역단위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미군기지로 인해 사라진 하계마을의 팽나무

를 동화로 담은 ‘하계마을 팽나무’ 팀, 군산의 도시 숲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카드 뉴스로 소개한 ‘군산의 숲세권을 찾아서’ 팀, 팔마산의 생태를 지도로 제작한 ‘팔마산의 생태’ 팀, 또한 ‘육산농부일지’와 ‘육구들노래’ 팀 등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수집하고 조사된 다양한 지역의 문화자산, 일상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로 구축돼 군산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그 결실로 ‘10월을 문화공유의 달’을 운영해 일 년의 활동과 기록을 공유, 그동안 추진한 성과물을 ‘문화거리 영동 프로젝트’, ‘우리 동네 아카이브 : ‘신흥동과 육산면’, ‘동네문화카페 네트워크 데이’ 등을 통해 전시, 토크쇼,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과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역량과 문화적 욕구를 한데 모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문화도시 사업들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산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태근 기자

‘제14회 놀인 김환태문학제’ 개최

12일 무주 김환태문화관 다목적영상관서

제14회 놀인 김환태문학제가 12일 무주읍에 소재한 김환태문화관 다목적영상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사)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놀인 김환태 문학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전선자 (사)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 회장, 김영 전북문인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경과보고 및 놀인 약사 소개, 환영사, 축사,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영광스런 제14회 김환태평문문학상은 손유경 교수(48·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평론가)의 ‘삼투하는 문장들-한국문학의 젠더지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손 교수는 일제강점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비롯한 근대 여성문학, 감성연구 등 1980~1990년대 한국문학과 문화에 관한 연구에 몰두해 왔다. 고종과 풍자,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슬픈 사회주의자의 등을 책을 펴냈다.

심사위원으로 권영민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최병표(문학평론가), 전선자 (사)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 회장이 참여했다.

전선자 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 회장은 “김환태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학제가 올해로 제14회에 이르렀다”며 “김환태 선생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의 민족문학을 확립하는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제14회 놀인 김환태문학제가 우리나라 비평 문학계의 인지도와 깊이가 무주는 물론 전북, 나아가 한국문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놀인 김환태문학제를 통해 한국비평문학의 거장 김환태 선생을 기리고 능력있는 신예들을 배출하는데 기



여해 은 무주군 또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명인오마주-이은주·김석출·박봉술 편’ 진행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12~26일 토요일 오후 4시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2022 명인오마주-이은주, 김석출, 박봉술 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명인오마주’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고(作故)한 명인(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삶과 예술을 회고하는 공연으로, 명인에게 기여를 직접 전수받은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현장 공연과 더불어, 명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술세계의 발자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이은주, 김석출, 박봉술 편이 준비돼 있다.

먼저, 12일 ‘명인오마주-이은주’ 편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였던 고(故) 이은주 명인을 회고하는 무대로 마련됐다.

19일 ‘명인오마주-김석출’ 편은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보유자였던 고(故) 김석출 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공연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동해안별신굿보존회가 뜻을 모아 공동 기획했다.

끝으로 26일 ‘명인오마주-박봉술’ 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관소리 적벽가 보유자였던 고(故) 박봉술 명인의 소리길 인생을 따라가본다.

한편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제로 공연 10일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온라인(네이버TV)으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